

|                                                                                   |                                                                |      |                                     |
|-----------------------------------------------------------------------------------|----------------------------------------------------------------|------|-------------------------------------|
|  | <b>보 도 자 료</b><br><br>제공일 : 2025년 12월 17일<br><br>사 진 : 포함 (1매) | 작성과  | 고흥군의회의회사무과                          |
|                                                                                   |                                                                | 담당부서 | 과 장 : 정상태<br>팀 장 : 김도형<br>담당자 : 최승원 |
|                                                                                   |                                                                | 연락처  | 061)830-6067                        |

## 고흥군의회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우주산업 삼각체계 완성의 마침표... 고흥군 기존 인프라 연계 및 균형발전 최적지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12월 15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류제동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우주센터 조성과 우주항공산업 진흥원 설립 입지로 고흥이 최적지임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우주항공 국가산단 등 우주산업 기반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거점으로, 우주산업 체계구축의 효율성과 국가발전의 균형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특히 고흥군의회는 정부가 구상하는 우주산업 삼각체계(대전-경남-전남)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연구)과 경남(위성)에 비해 전남은 산업화 및 기업 지원 기능이 결여돼 있어, 고흥군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흥군의회의는 건의문에 ▲제2우주센터를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하여 발사체 산업 집적지로 육성할 것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고흥에 신설하여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제동 의원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입증된 고흥군에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더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회의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고흥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문

2025년 11월 27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한 누리호 4차 발사는 대한민국 우주강국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우주산업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의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 가운데 누리호 발사장 소재지로서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를 보유한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단지 기술 시험의 완료가 아니라, 민간 중심 우주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상업·실용위성 발사시장 진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 성과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전환기에 지금이야말로, 발사 인프라를 넘어서 우주산업 허브로서의 고흥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현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 우주산업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32년 첫 발사를 목표로 제2우주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후보지를 검토중입니다. 후보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과제는 우주산업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입니다.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으로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우주항공 국가산단 등을 갖춘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거점입니다. 또한 안정된 입지와 바다와 인접한 비행안전구역 등 발사체 운영 여건이 타 지역에서 대체

할 수 없는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흥에 제2우주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발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향후 증가할 상업용 발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제2우주센터 조성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전 - 경남 - 전남을 연결하는 우주산업 삼각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남은 현재 우주산업화와 관련된 산업화 지원 기능과 기업 지원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경남에는 우주항공청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위치하고 있지만, 고흥은 민간 발사장과 국가산업단지 등 우주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으나, 정책 지원과 산업화 지원 기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삼각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 연구 및 시설구축지원 등을 총괄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고흥에 유치해야 합니다. 우주항공진흥원이 고흥에 설립될 경우, 제2우주센터와 연계하여 연구, 시험, 발사, 산업화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주산업 생태계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흥은 이미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고흥에 유치하게 된다면, 고흥이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산업 삼각체계에서 전남이 우주산업의 산업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고흥에 유치하는 것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시대적 요청하에 저를 비롯한 고흥군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2우주센터를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하여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발사체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라.

하나.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고흥에 신설하여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고흥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라.

2025년 12월 15일

고 흥 군 의 회